

찾아가는 진로상담 교육격차 해소

도교육청, 진로교육 취약한 농어촌 중3 학생대상 서비스 7년째 추진 올해도 73개교 1579명 대상 상담활동 전개... 이달 군산·익산서 진행

전북도교육청은 7년째 진로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교육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을 찾아가 고교 진학 및 진로 전환기를 맞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의 경우 평준화 인문계나 특목고, 특성화 고교로의 진학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이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본격적으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진로교육 및 맞춤형 상담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북의 교원 정원은 농어촌 학교가 많은 지역적 한계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많이 양성하여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할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별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현신적 노력의 뒷받침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상담을 7년째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에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중 상담을 요청한 73개교 98

학급 1,57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0여 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로상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상 학생들은 상담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진로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와 소질 및 적성 등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 다음 진로진학상담교사로부터 진로진학 및 올바른 직업 가치관 형성을 위한 특강을 듣고, 진로 탐색 자료의 제공에 따른 자기주도적 탐색 활동을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집단 상담 및 개별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지난 4일 상담활동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사전 협의회를 시작으로 5월엔 익산과 군산, 6월엔 김제와 완주 및 정읍과 부안, 고창을 찾아가게 되고, 7월엔 무주와 진안, 장수, 그리고 9월엔 임실과 순창 및 남원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이 진행된다. 상담활동을 실시한 후 2차 상담을 요청하거나 추수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월에 추가 상담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도교육청 진로진학센터 담당자는 "교육활동은 말로 만들어내는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뛰는 조용한 서비스가 깊은 감동을 주며,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활동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도교육청 오늘부터 찾아가는 문화·인권감수성 교육

교직원 사전연수 마쳐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3일 '찾아가는 문화·인권감수성교육'을 위한 다문화교육 관련 교수, 전문강사, 교사, 이주민대표 등 16명의 강사단을 구성하고, 전북 다문화교육 추진방향, 찾아가는 문화인권감수성교육 운영계획,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과 특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다양성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의식 개선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인권감수성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문화·인권감수성교육은 학교에서 선택한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직원 연수를 진행하면, 그 후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인권감수성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도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신청에 따라 9월부터 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유모 강사는 "교직원 연수에 참여하게 되어 몹시 기쁘고, 자신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생활한 경험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잘 살려 살아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중이며, 이를 대비한 문화인권감수성교육은 특정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 모든 교직원에게 꼭 필요하다"며,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 수시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협동심으로 똘똘 고창군 성송초등학교가 최근 교내 운동장에서 '하마애 운동회'를 열었다. 이날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사람스러운 모습을 보고 응원하기 위해 많은 학부모와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전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오늘 한식조리사 취득반 개강

전주시가 맞춤형 취업교육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을 한식조리사로 육성하기로 했다.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는 9일 결혼이민자 6명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3개월 과정의 '한식조리사 취득반' 개강식을 갖는다. 이번 조리사 취득과정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공전요리제과제빵미용화원(원장 김정여)에서 진행되며, 필기와 실기수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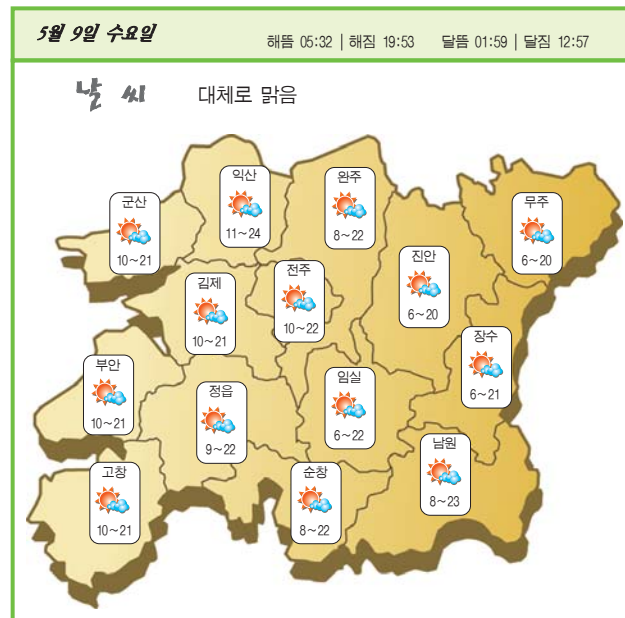
병행하는 총 59회기의 교육으로 운영된다.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교육비용을 지원하며, 모든 수강생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에 성공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단티뚜이 씨(베트남)는 "수업을 통해 한국 음식을 능숙하게 만들어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에 꼭 합격하여 취업을 하고 싶다"고 교육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기동취재반

김재곤 전북대 교수,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장 선출



전북대학교 김재곤 교수(치과 대학·사진)가 지난달 28일과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소아치과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1대 회장에 선출됐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1959년 창립된 대한소아치과학회는 소아 및 청소년의 구강건강에 대한 연구, 교육, 학술활동 등을 활발하고 하고 있으며, 산하에 6개 지부를 둔 치의학 분야 국내 최고의 명문 학회다.

학회에는 1,000여 명의 회원들이 있으며, 매년 4회 발간하는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김재곤 선임 회장은 "회원들에게 소아청소년치과분야의 다양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연중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소아치과 전문의로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를 환자에게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연계를 개발해 역동성을 갖고, 젊은 교수들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학술연구지원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인공지능 의료기기 사업화

원광대, 클라우드형 학습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기관 선정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아 국내 의료산업 활성화 큰 역할 기대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도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인체 형태계측기반 융합 임상연구를 위한 클라우드형 학습플랫폼 구축 및 실용화연구' 사업에 총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의과대학 윤권하(영상의학과) 교수가 총괄 연구책임 맡은 이 사업은 인체 형태와 관련된 질환 중 가장 높은 유병율을 차지하는 근 감소증이 전신 쇠약, 활동장애 등 임상적으로 사망률 및 각종 질환의 위험인자로 현재까지 증가돼 국민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최근 국제적으로 ICD-10-CM 질병 코드가 부여돼 공식적인 진료기반이 형성됨에 따라 인체 형태계측과 관련한 근 감소증의 한국표준 진단기준 확립 및 국제적 진로처럼 마련 근거 제시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윤권하 교수팀은 사업수행을 통해 대규모 임상자료 및 영상자료 등 모든 인체 형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준화해 심층학습분석 알고리즘으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학습플랫폼 구축과 실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 60억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이 사업은 향후 6년(주)가 참여해 공동으로 수행된다.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원광대학교병원에 구축되는 인공지능학습센터는 인체 형태학에 특화된 클라우

드 기반의 근 감소증 및 인체 형태계측연구에 필요한 다기관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를 비롯해 국가 차원의 대표성 있는 대규모 코호트 및 표준화된 데이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진단치료 솔루션의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 창출돼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여 의료데이터 및 의료현장 기반 아이디어를 가진 의사 또는 병원과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회사 또는 연구자를 연결해 효율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국가적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원광대학교병원 유수의 병원 및 대학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의생명연구원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 경험과 실적을 인정받았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사업 수행으로 국내 의료산업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윤권하 교수는 "이번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원광대학교병원은 의료인공지능 분야의 지속적인 혁신적인 발전과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의료시장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